

인문계열 논술문제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일지매 씨는 언덕 위에 3,000m²의 과수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귀향한 홍길동 씨가 언덕 아래에 역시 3,000m²의 과수원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두 과수원 중 일지매 씨가 소유하고 있는 과수원의 토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같은 경작비를 들여도 홍길동 씨의 과수원에 비해 사과와 감 모두 더 많이 생산되고 있다.

	일지매 과수원	홍길동 과수원
사과	100상자	60상자
감	50상자	40상자

그렇지만 두 사람이 각자 자기 과수원에 사과와 감을 반반씩 심는 것보다는 자신의 과수원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과일을 특화한다면 둘 다 더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예컨대 일지매 씨가 감만 심는다고 해보자. 그럴 경우 50상자의 감을 생산하는 대신 100상자의 사과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므로, 감 1상자 생산에 사과 2상자의 비용을 들이는 셈이다. 반면 홍길동 씨의 경우 감 40상자를 생산하는 대신 60상자의 사과를 생산하지 못하므로, 감 1상자 생산에 사과 1.5상자의 비용을 들이는 것이 된다. 따라서 감의 경우 홍길동 씨의 기회비용이 적다. 그래서 일지매 씨는 사과를, 홍길동 씨는 감을 특화해서 심기로 하고, 일지매 씨가 거둔 사과와 홍길동 씨가 거둔 감을 서로 필요한 만큼 교환하기로 하였다. 물론 이 때 둘 다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홍길동 씨의 감 1상자와 교환할 일지매 씨의 사과가 2상자보다는 적어야 하고 1.5상자보다는 많아야 한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교학사, 43쪽에서 발췌, 수정

<나>

방글라데시 경제학자이자 은행 설립자인 무하마드 유누스는 대학교수 시절 한 빈민촌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대나무 의자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는 수피아 베클이라는 젊은 여인을 만났다. 그녀가 대나무 의자 하나를 만드는 데는 원재료 값으로 22센트가 필요했다. 그러나 돈을 마련할 길이 없는 그녀는 원재료를 중간 상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대나무 의자를 중간 상인에게 24센트에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그녀는 대나무 의자를 직접 시장에 팔면 훨씬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원재료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 상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힘들여 의자를 만든 대가로 그녀가 벌어들인 돈은 겨우 2센트에 불과했고 오랫동안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천재교육, 213쪽에서 발췌, 수정

<다>

로크는 모든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동등한 자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인간들 사이에 소유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그들 각자가 자연이라는 원료에 가하는 노동에서, 그리고 그 활동에서 보여주는 근면성과 합리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로크의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고전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도는 한 재화의 가치(그것이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교환되느냐)는 그것을 생산하는 데 얼마만큼의 노동이 필요한지에 비례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때 말하는 노동에는 원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계장치들까지 포함된다. “한 상품의 가치, 즉, 그것과 교환될 어떤 다른 상품의 양은 그것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상대적인 양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 노동에 대하여 지불되는 보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리카도는 각 상품에 가치가 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상품에는 내재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투하된 노동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그 경우 화폐라고 하는 것도 이를테면 금의 일종으로서 그것의 가치는 그 금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에 따라 결정될 뿐이다. 모든 상품에는 교환 가치가 내재해 있고, 화폐는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화폐는 가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해 리카도 좌파나 프루동 등은 화폐를 폐기하고 노동증표나 교환은행을 구상했다.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p>이러한 생각을 예리하게 비판한 사람이 베일리였다. 그에 따르면, 상품의 가치는 다른 상품의 사용 가치에 의해 상대적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절대 가치’는 없다. “가치는 뭔가 절대적이고 내재적인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 대상이 교환될 수 있는 상품으로 존재하는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가치는 두 대상물 사이의 관계를 지시하는 것이고, 어떤 상품에 대해서도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간에) 다른 상품과의 관련 없이는 단정할 수 없다.” “가치를 뭔가 내재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생각이 생겨난 것은 다른 상품들 내지 화폐와의 항상적인 관련이라는 사정에서이다.”</p> <p>베일리는 상품의 가치는 다른 상품과의 관계에서만 있으므로, 관습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베일리의 생각에 사물의 가치는 (금을 포함한) 다른 사물과의 관계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에 내재하는 가치 실체는 없다. 사물들의 가치는 상대적인 관계의 연쇄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들을 통합하는 중심은 존재하지 않거나 무수히 많다. 실제로 끊임없는 가격변동이 그것을 말해준다. “가치란 동시대 상품들 간의 관계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품만이 서로 교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기 한 상품의 가치를 다른 시기의 그 가치와 비교한다면, 그것은 단지 이 상품이 다른 시기의 어떤 상품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관계를 비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베일리는 화폐를 단순한 중립적 매체로서, 가치 척도 또는 교환 수단으로서, ‘아무래도 좋은 것’으로 간주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가라타니 고진 지음, 송태욱 번역, 《트랜스크리틱》, 328~333쪽에서 발췌, 수정</p>		
<p><라></p> <p>리카도가 노동 가치를 실제로 놓고 화폐를 이차적인 것으로 간주한 것처럼, 베일리는 교환가치를 바닥에 놓고 화폐를 이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문제가 있다. 화폐가 금이라고 해도 금은 화폐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상품을 금과 교환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우선 화폐로 바꾸고 그것으로 금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금을 화폐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상품과 상품은 왜 직접 교환되지 않는가?</p> <p>한 상품의 가치는 다른 상품과의 등치 형태, 바꿔 말해 ‘가치 형태’에서 생겨난다. 예를 들어 상품 a의 가치는 상품 b의 사용 가치에 의해 표시된다. 마르크스는 이를 ‘단순한 가치형태’라고 불렀다. 마르크스의 언어로 이때 상품 a는 상대적 가치 형태, 상품 b는 등가형태에 놓인다. 바꿔 말하면 상품 b는 사실상 화폐(등가물)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한 가치형태’에에서는 역으로 상품 a로 상품 b를 샀다, 즉 상품 a야말로 화폐(등가물)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떤 상품도 자신을 화폐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화폐는 말하자면 상품 b가 다른 모든 상품에 대해 배타적으로 등가형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즉 한 상품만이 다른 모든 상품과 교환가능하게 되었을 때 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이나 은이 일반적인 등가 위치를 점하고, 다른 모든 물건은 상대적인 가치형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금이나 은은 화폐이다.</p> <p>화폐에 의한 교환은 등가형태와 상대적 가치형태, 즉 화폐와 상품이라는 비대칭적인 관계를 수반한다. 화폐에는 구매력(직접적 교환가능성의 권리)이 있다. 그것이 화폐를 가진 자와 상품은 가진 자와의 관계를 비대칭으로 만든다. 상품 교환이라고 할 때 또는 시장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시장에서의 대등한 매매를 떠올린다. 그러나 화폐를 가진 자와 상품을 가진 자는 대등하지 않다. 상품은 팔리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더구나 화폐를 가진 자는 언제든지 상품을 교환할 수 있다. 즉 화폐를 가진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것과도 직접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사회적 질권’(마르크스)을 갖는 것이다.</p> <p>그렇다면 인간이 화폐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로부터 화폐를 모아두는 도착이 생긴다. 그것은 재화(사용가치)를 모아두는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화폐에는 상품과 교환할 권리가 있지만 상품에는 화폐와 교환할 권리가 없다. 게다가 상품은 팔리지 않으면(화폐와 교환되지 않으면) 교환가치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가치도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폐기되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상품이 화폐와 교환될지 어떨지를 ‘목숨을 건 도약’이라고 부르고 있다.</p> <p>*질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으로부터 받은 담보물건.</p> <p style="text-align: right;">가라타니 고진 지음, 조영일 번역, 《세계공화국으로》, 85~91쪽에서 발췌, 수정</p>		
<p><마></p> <p>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 혁명은 인간 노동력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 준 동력 혁명이자 기계 혁명이었다.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꽃피웠던 산업화 시대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지식 정보 사회로 급속하게 바뀌어 가고 있다.</p> <p>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 노동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는 노동이 주로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 노동이었던 데 반해, 지식 정보 시대의 노동은 지식과 기술, 즉 인적 자본이 결합된 노동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에 따라 노동자가 받는 임금도 인적 자본이 많은 사람의 임금이 더 많으며, 이 때문에 노동 시장에서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주로 인적 자본의 향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p> <p>지식 정보 사회에서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단순한 사무 직종의 상당 부분을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흔하게 볼 수 있던 은행 창구 직원의 많은 업무가 인터넷 뱅킹이나 현금 지급기로 대체되었고, 사무실에서 단순한 서류 정리나 타자 작업을 담당하던 사무 보조원은 컴퓨터의 문서 처리 기능에 자리를 내주었다.</p>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p>그 결과 은행원의 주 업무는 고객의 입출금 관리가 아니라 자산 관리나 금융 상담과 같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바뀌었으며, 사무실에 남아 있는 인력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p> <p>이제 인류의 미래 사회는 보다 고도화된 지식 정보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모든 전자 제품들이 기능의 경계가 사라진 통합형 스마트 기기로 진화하고, 인간의 모든 경제 활동이 이들과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되면서 재택근무나 원격 교육, 원격 진료 등도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직업에 대한 개념도 직장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일로 바뀌면서 한 사람이 여러 직업을 가지는 경우도 낫설지 않게 될 것이다.</p> <p>다가오는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경제생활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잘 살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적 자원의 능력과 소양을 키우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교학사, 68~69쪽</p>		
<p><바></p> <p>인간의 삶에 다양한 가치 체계가 존재하는 만큼 서로 다른 직업관이 존재한다. 직업관에는 크게 직업을 ‘소득획득의 수단’으로 보는 직업관, ‘사회적 참여’에 목적을 두는 직업관, ‘자아실현’을 위한 직업관이 있다.</p> <p>먼저 수단적 직업관은 직업을 출세나 생계유지와 같은 명예와 부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직업관이다. 수단적 직업관에서의 직업은 단지 자신의 출세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며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이다. 이러한 직업관 하에서 개인은 출세 지향적인 자세와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성향을 지니게 되므로 직업을 통한 사회 기여나 자기만족과 보람 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 경우 직업은 사회봉사나 삶의 이상 실현과는 관련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직업관에서 개인은 직업 생활에서 기쁨을 얻을 수 없고 그러한 활동을 통한 산물들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없다.</p> <p>참여적 직업관은 개인의 필요보다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강조하여 사회적 역할 분담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전체주의적 직업관이다. 참여적 직업관에서 직업은 사회와 국가에 대한 봉사의 의미를 지니며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직업이 지닌 사회적 역할 분담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직업이 지닌 사회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직업 생활은 사회 발전과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할 것이 강조된다. 따라서 참여적 직업관에서는 자칫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하고 같은 개인의 가치가 도외시될 가능성이 있다.</p> <p>자아실현적 직업관은 직업을 자신의 능력과 소질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는 직업관이다. 자아실현적 직업관은 직업을 개인의 생계유지나 출세의 수단으로 보거나 사회에 대한 봉사로 보는 시각을 모두 거부한다. 이러한 직업관은 직업을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자아실현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즉 자아실현적 직업관은 직업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개인은 직업을 통해 사회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개인은 직업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재화를 얻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람직한 직업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교학사, 217~218쪽</p>		
<p>【문제1】</p> <p><가>, <나>의 사례를 활용하여 <다>, <라>에 제시된 ‘화폐의 역할’에 관한 세 가지 견해를 요약·서술하시오. (800자 내외)</p>		
<p>【문제2】</p> <p>아래 <보기>는 돈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을 <다>, <라>에 나타난 화폐의 역할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각 사례가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마>, <바>의 내용에 입각하여 논하시오. (1000자 내외)</p>		
<p style="text-align: center;">< 보 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사례 _ 인도인 여성의 대리모(代理母) 서비스: 6250달러 인도에서 대리모를 구하는 서구 부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인도는 대리모 임신이 합법인 데다가 비용도 미국의 3분의 1 이하이기 때문이다. • [B]사례 _ 의사의 휴대전화 번호: 연간 1500달러 이상 점차 많아지는 ‘전담 진료’ 의사들은 1500달러에서 2만5천 달러까지 연회비를 기꺼이 지불하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한 당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마이클 샌델 지음, 안기순 번역,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20쪽에서 발췌-</p>		

인문계 논술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출제의도

이번 인문·사회계열 모의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수준의 지식을 토대로, 주어진 다양한 장르의 제시문을 읽고 이를 종합·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정리·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함에 초점을 두었다.

제시문은 무엇보다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60% 이상을 발췌하려 노력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수준과 내용의 제시문은 문학·사상·역사·철학·시사·자연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별함으로써, 수험생들로부터 다양한 학문 분야를 통합적으로 이해·분석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본 모의 논술고사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행위 중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화폐’에 대하여, 그 정의와 가치, 그리고 그 역할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는 유형으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현대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물질만능과 금전 우월주의의 직업관에 대하여 ‘화폐’의 역할과 기능을 접목시켜 사고(思考)해 봄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춰 논리적으로 추론해 낼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와 (나)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제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이 교환되고 판매되는 여러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제시문에 나타난 상품의 생산과 판매의 형태들은 제시문 (다)와 (라)에서 밝히고 있는 화폐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나온 예로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일지매와 홍길동이 노동을 투입해 과일을 생산하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 경우 과일의 가치는 이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 이 두 사람이 투입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이 제시문은 같은 노동 시간을 투입해도 과수원 토질의 좋고 나쁨에 따라 수확량이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만약 상품의 가치가 투입된 노동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면 일지매가 생산한 사과나 감의 상자당 가치와 홍길동이 생산한 사과나 감의 상자당 가치가 다르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가)는 또한 특화를 통해 두 사람 모두 더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특화를 통해 일지매는 사과만, 홍길동은 감만 심고, 감 상자와 사과 상자를 1:2이하 1:1.5이상의 비율로 교환한다면 각자 사과와 감을 반반씩 심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품의 특화와 교환을 통해서도 노동 시간당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생산물의 가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제시문 (나) 역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소개된 예로서, 대나무 의자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를 구입할 비용이 없어서 자본을 가진 중간 상인에게 이윤을 빼앗기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수피아 베굼이라는 여인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나)의 이 사례는 제시문 (라)의 설명에 대응하는 것이다. 화폐를 가진 중간 상인이 상품을 가진 수피아 베굼의 이윤을 가로채는 상황을 통해 우리는 화폐를 가진 자가 상품을 가진 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화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리카도와 베일리의 상반된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우선

리카도와 베일리는 화폐가 상품의 가치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하지만 상품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며 그 때문에 화폐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한다. 리카도에 따르면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리카도에게 화폐란 궁극적으로는 상품에 투입된 노동 시간을 표시하는 장치이다. 반면에 베일리에 따르면 한 상품의 가치는 다른 상품의 사용 가치에 의해 상대적으로 표현될 뿐,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절대 가치’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베일리에게 화폐란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는 단순한 중립적 매체로, 어떤 내재적 가치도 반영하지 않으며,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제시문 <라>에는 화폐의 역할에 관한 마르크스의 관점이 제시되어 있다. 마르크스는 화폐란 어떠한 상품이 다른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배타적인 등가형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즉 한 상품만이 다른 모든 상품과 교환가능하게 되었을 때 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화폐에 의한 교환에는 화폐와 상품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수반된다. 그 이유는 첫째, 화폐는 상품과 교환할 권리를 가지나 상품은 화폐와 직접적으로 교환할 권리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상품은 팔리지 않으면 교환가치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가치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폐를 보유한 자는 화폐와 교환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품을 보유한 자에 비하여 우위를 점한다. 이로 인하여 인간이 화폐를 원하고, 화폐를 모아두는 도착이 생긴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발췌, 수정한 글이다.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동의 의미가 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20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 노동이 주를 이뤘던 것과는 달리,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지식 정보 시대에는 지식 및 기술과 같은 인적 자본이 결합된 노동이 주를 이룬다. 임금이 인적 자본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급되며, 노동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 역시 주로 인적 자본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지식 정보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가 인적 자본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처럼 지식 정보 사회에서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단순한 사무 직종의 상당 부분을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통합형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확산되고 재택근무, 원격 교육 및 원격 진료 등이 보편화되는 등 보다 고도화된 지식 정보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직업에 대한 개념 역시 ‘직장 중심의 일’ 대신, 능력에 따라 한 사람이 여러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등 ‘사람 중심의 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살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적 자원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글쓴이는 주장한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발췌, 수정한 글이다. 이 글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직업관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수단적 직업관은 직업을 생계유지 및 출세를 위한 수단, 즉 부와 명예 획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직업관이다. 이러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을 때 개인은 출세 지향적인 자세와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성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다면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거나 삶의 이상을 실현할 때 느낄 수 있는 만족과 보람 등은 얻기 어렵다. 둘째, 참여적 직업관은 개인의 필요보다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봉사에 초점을 두며, 사회적 역할 분담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전체주의적 직업관이다. 이러한 직업관에서는 개인이 직업 생활을 통하여 사회 발전과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강조하므로, 자칫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의 가치가 도외시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적 직업관은 직업을 자신의 능력과 소질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는 직업관이다. 즉, 이러한 직업관에서는 직업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대신 자아실현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관에서는 개인이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사회와 관계를 형성한다는 측면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 해설

【문제1】

문제1은 지문을 독해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첫째, 제시문 <다>와 <라>로부터 화폐의 역할에 대한 세 가지 다른 견해를 찾아내고, 둘째, <가>와 <나>의 상황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각 견해의 핵심 내용을 요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폐의 역할에 대한 세 가지 견해 중 둘은 제시문 (다)에 나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라)에서 설명하고 있다. 화폐의 역할에 대한 첫 번째 견해는 리카도가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서, 화폐란 상품에 내재된 가치를 표시하는 것인데, 이 가치란 다른 아니라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노동 시간이다. 제시문 (가)의 사례를 들어 표현하자면, 화폐란 이를테면 사과 한 상자를 생산하기 위해 일지매가 투입한 노동 시간, 감 한 상자를 생산하기 위해 홍길동이 투입한 노동 시간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화폐의 역할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 베일리의 견해로서, 화폐란 상품과 상품의 교환을 위해 사용되는 중립적인 매개 수단으로서, 두 상품이 서로 대해 상대적으로 갖는 가치를 표시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한 상품의 가치는 다른 상품과 어떤 비율로 교환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며, 화폐란 각 상품이 갖는 이러한 상대적 가치를 표시하는 수단인 것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과 일지매가 감과 사과를 1: 1.75의 비율로 교환한다고 해보자. 이 때 화폐의 역할이란 감 한 상자와 사과 1.75상자를 같은 값으로 나타내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만약 감과 사과를 1: 1.8의 비율로 교환한다면 화폐는 감 한 상자와 사과 1.8상자를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는 데 쓰일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화폐는 지폐일 수도, 금일 수도, 배와 같은 다른 농산물일 수도 있다. 그것은 아무 것이라도 좋다.

화폐의 역할에 대한 세 번째 견해는 마르크스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는 우선 화폐를 내재적 가치든, 교환가치든 어쨌든 상품의 가치를 표시하는 이차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리카도와 베일리의 견해 둘 다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마르크스의 견해에 따르면 화폐는 다른 모든 상품과 교환가능하게 될 때 출현하는 것이므로, 상품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화폐를 가진 자는 언제든지 그것을 상품과 교환할 수 있지만, 상품을 가진 자는 그렇지 못하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상품은 '목숨을 건 도약'을 통해 비로소 화폐와 교환될 수 있다. 이런 비대칭적 관계 때문에 사람들은 화폐를 원하고, 화폐를 모아두는 도박에 빠진다. 화폐의 이러한 우월한 지위를 우리는 제시문 (나)의 수피아 베굴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화폐를 확보하지 못한 그녀는 화폐를 가진 중간 상인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화폐를 무기로 박한 이윤을 강요하는 중간 상인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

【문제2】

문제2는 이해력, 분석력, 응용력 및 논리적 설득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구체적으로, 문제2의 전반부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돈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보기>의 두 가지 사례가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하였는지 <다>와 <라>에 나타난 화폐의 역할에 기초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제2의 후반부에서는 <마>에 제시된 현대 사회에서의 노동의 의미와 <바>에 제시된 여러 다른 직업관에 근거하여 <보기>의 사례들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논하여야 한다. 아래에 문제2의 의미를 상술한다.

첫째, <다>와 <라>에는 화폐의 역할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리카도는 모든

상품에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투하된 노동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내재적 가치가 있으며, 화폐의 역할은 이 내재적인 가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예리하게 비판한 베일리는, 상품에 '절대 가치'란 없으며 상품의 가치는 다른 상품의 사용 가치에 의해 상대적으로 표현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베일리는 화폐를 단순한 중립적 매체로서, 즉 동시대에 생산되는 상품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나 교환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마르크스는 화폐와 상품 간에 비대칭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화폐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것과도 직접적으로 교환될 수 있기 때문에 화폐와 교환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품에 비하여 우위를 점한다고 보았다. 화폐의 역할에 관한 세 가지 관점 중 문제2의 보기에 제시된 사례의 원인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세 번째인 마르크스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기>에서는 돈으로 사고팔게 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지나친 황금만능주의에 물들었다고 비난받을 수 있는 사례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금전적 가치가 도덕적 가치나 인간적 도리보다 우선시 되는 예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전적 가치에 의해 인간적 도리가 무너지는 이러한 상황은 화폐를 모아두려 하고, 더 나아가 화폐에 대한 도착에까지 이르는 인간의 성향에 의해 손쉽게 설명될 수 있으며, 인간의 이러한 성향은 다시 화폐가 상품에 대해 갖는 비대칭성, 우월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문제2의 전반부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의 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해한 바에 의거하여 현대 사회에서 대리모 서비스와 의사의 휴대전화 번호(즉, 당일 진료권)를 돈으로 거래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둘째, <마>에서는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 정보 시대로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노동의 의미가 인적 자본 중심으로 정의되게 되었음을 제시한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고도화된 지식 정보 사회가 도래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직업에 대한 개념 역시 '직장 중심의 일'에서 '사람 중심의 일'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에서는 수단적 직업관, 참여적 직업관 및 자아실현적 직업관을 비교, 대조하고 있다. 요컨대, <마>와 <바>에서는 노동의 의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노동자들 자신이 노동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 다른 관점들을 취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한 바를 응용하여 대리모 서비스와 의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구매하고 당일 진료권을 보장받는 사례 각각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논해야 한다. 각 사례를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학생에게 달려있으며 그 자체가 평가의 대상은 아니다. 대신 <마>와 <바>에 기초하여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는가가 평가의 초점이다.